

치매요양시설 디자인에 대한 시설근무자의 평가 및 요구

- 부산시 D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

Design Evaluation and Needs of the Staff for Nursing Home for the Dementia

- Focused on D hospital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

오찬옥* / Oh, Chan-Ohk

Abstract

The demands of nursing home for the dementia are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no enough nursing homes and design guidelines for i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needs of the staff for the nursing home design and suggest the design guidelines of the Korean nursing home for the dementia. The subjects were 15 nurses and 18 care givers who worked in D hospital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Busan. Data were collected b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st important design element in nursing home for the dementia which the staff mentioned was 'healing environment' and then 'function' and 'maintenance'. Second, the care-giver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facility design than the nurses. Third, the staff pointed out that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 room and nursing station', namely, short distance between them, and 'enough wandering space' had to be considered at first in design process of nursing home with dementia. Also, the comfort and intimate interior mood, fresh air and sunlight were also pointed out as the important elements in nursing home design for the dementia.

키워드 : 치매요양시설, 요양시설, 사용자 요구, 거주후 평가, 사용자중심 디자인

Keywords : Nursing home for the dementia, Nursing home, User needs, POE, User oriented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치매노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케어방안 마련이다. 치매노인의 경우 이제까지 가정 차원에서 케어하여 왔으나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국가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전국에 걸쳐 치매요양시설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치매노인시설의 경우 시설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이 돌보는 사람의 업무 효율성 뿐 아니라 치매노인의 치유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요양시설 디자인의 지침을 개발하는 등 치매시설 디자인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치매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제 공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치매요양시설의 디자인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법 중의 하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로 치매노인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치매노인전문병원의 간호사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이 생각하는 치매요양시설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매노인전문 병동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 및 치매요양시설 디자인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치매요양시설을 디자인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1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의 입장에서 본 치매노인 요양시설 디자인 요소들의 중요도를 파악한다.

* 이사, 인제대학교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유니버설 디자인연구소 수석연구원

둘째,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매노인전문병동의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의 치매요양시설의 전체 규모, 개실의 종류, 개실당 사용인원수, 실내분위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치매노인 요양시설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와 평가 및 요구의 근무자의 종류(간호사, 간병인)와 건물종류(본관, 별관)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다.

다섯째,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치매요양시설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D 치매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치매 요양시설의 전체 디자인 요소와 공간구성 요소 및 개인실과 공동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 등에 대한 중요도와 평가 및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시 소재 D치매노인 전문병원의 본관과 별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5인과 간병인 18인으로 총 33인이었다. 간호사의 연령은 최저 22세에서 최고 43세로 20대 7인, 30대 6인, 40대 2인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2.1세였다. 간병인의 연령은 최저 45세에서 최고 57세로 40대 8인, 50대 10인이고 평균 연령은 50.6세로 간호사보다 연령이 많았다. 현 시설에서의 근무기간은 각각 평균 3.8년과 3.5년이었다.

조사는 2004년 8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근무시간의 다양함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는 방법과 배부 후 회수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치매요양시설 디자인 요소들의 중요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매노인병동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 치매요양시설 디자인에 대한 요구를 묻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요양시설에서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5문항), 공간배치요소(9문항), 개인실과 공동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10문항), 자연요소(3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¹⁾를 사용하여 묻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전반적인 디자인(5문항), 병실과 공동공간의 각 실(20문항), 공간배치(8문항), 병실과 로비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10문항), 자연요소(3문항)에

1) 아주 중요하다=5점, 중요하다=4점, 그저 그렇다=3점, 중요하지 않다=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으로 처리하였다.

대한 평가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치매요양시설의 전체 규모, 개실의 종류, 실내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윈도우용 버전 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치매노인시설 관련 연구경향

치매노인시설²⁾관련 선행연구들은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기존 시설의 공간구성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둔 연구, 치매노인들의 행동특성과 공간특성과의 관계규명에 중점을 둔 연구, 치매노인시설의 유형에 중점을 둔 연구, 치매노인시설의 평가에 중점을 둔 연구와 기타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공간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대개 공간의 종류와 배치 및 면적을 파악하는 연구들이었다. 단순히 치매요양시설의 공간구성 현황을 파악한 연구³⁾, 치매노인전문병원 병동부분의 공간구성을 실의 종류별 면적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⁴⁾, 치매병원 병동부의 공용생활공간의 평면을 분석하여 유형분류 및 면적을 분석한 연구⁵⁾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 대부분은 평면분석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치매시설들의 공간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 측면에서의 평가나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지 않아 치매시설의 공간계획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치매노인들의 행동특성과 공간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치매요양시설의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연구들은 주로 관찰조사로 진행되었다. 치매노인의 시설내 거주환경이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독립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치매노인의 행동특성이 거주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규명해 준 연구⁶⁾와 치료적 환경 디자인을 위하여 간호사와의 인터뷰와 치매요양시설 공용공간에서의 사회적 교류행위, 영역적 행동, 배회행위와 기타 문제행동을 중점적으로 관찰조사하여 치매요양시설 공용공간특성이 치매노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연구⁷⁾, 치매병원 치매환자의

2)본 연구에서 치매요양시설은 치매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모두를 포함한다.

3)이민아·유옥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1호, 2004, pp.62-69

4)이정민·유영민, 치매노인전문병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7권 12호, 2001

5)최유신·박재승, 치매병원 병동부 공용생활공간의 유형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8호, 1999, pp.11-19

6)오은진·김민규, 박영기, 치매노인의 행동특성과 거주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 6호, 2000, pp.41-50

7)류승수·김광배·이경훈, 치매양로시설에서의 치료적 환경 구축을 위한

공용생활공간 사용행태를 관찰조사하여 물리적 환경과 공간사용행태와의 상관성을 규명한 연구⁸⁾, 이외에 문헌조사를 통해 치매노인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공간디자인 지침을 제시한 연구⁹⁾도 있다. 시설에서의 치매노인의 생활행위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거주 치매노인의 하루의 생활행위를 추적, 기록하여 조사한 연구¹⁰⁾와 중북도형 병동에서 치매노인의 공간이용 특성을 조사한 연구¹¹⁾가 있다. 후자는 노인전문병원과 치매병원을 대상으로 치매노인들의 생활행위내용 즉 생활행위, 행위 장소, 교류대상자를 추적조사하여 공간이용특성을 파악하였다. 치매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생활속성과 시설내 공간이용패턴의 기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6개월과 18개월 시점에서 시계열적으로 추적, 관찰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계획방향을 제시한 연구¹²⁾도 있다. 이들 연구는 치매시설은 치매노인의 행동특성에 기초한 계획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는 연구들이다.

치매노인시설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스웨덴의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의 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행해졌다¹³⁾.

치매요양소의 평가도구 개발을 시도한 연구도 몇 편 있었다. 케어환경 체크리스트(CEC; Care Environment Checklist)를 토대로 요양소 내부 8개 측면과 외부 4개 측면으로 구성된 치매요양소 평가도구를 개발한 연구¹⁴⁾와 9개 인자 61문항으로 구성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평가도구를 개발한 연구¹⁵⁾가 있다. 이외에 치매전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물리적 환경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조사한 연구¹⁶⁾도 있으나 평가도구의 내용이 연구자마다 달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5호, 2002, pp.3-10
 8) 최유신·박재승, 치매병원 치매환자의 공용생활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5호, 1999, pp.21-28
 9) 오찬욱, 치매노인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공간디자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권 5호, 2004, pp.59-67
 10) 양금석,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9호, 2002, pp.95-104
 11) 양금석, 치매노인의 공간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1호, 2002, pp.51-58
 12) 양금석, 치매전문요양시설 공간이용의 시계열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11호, 2003, pp.15-24
 13) 김대년, 유료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집단간 차이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3호, 2003, pp.65-72
 권오경·조명희·김대년·최정신,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 5호, 2000, pp.41-49
 최정신, 이연술,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의 그룹홈, 한국주거학회지, 8권 3호, 1997, pp.67-79
 14) 조영행, 치매요양소의 주거환경 평가 : 평가도구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3호, 2001, pp.77-84
 15) 오은진·박영기, 치매전문요양시설 평가도구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6호, 1999, pp.65-72
 16) 권오경, 치매성 노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II) - 치매 전문요양시설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1권 3호, 2000, pp.109-124

이외에 문헌이나 법규 등에 근거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외국 전문가들이 제시한 노인요양시설 계획의 목표와 원칙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관련 법규를 비교검토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연구¹⁷⁾와 국내의 법규와 사례 및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최소 거실면적 기준을 제안한 연구¹⁸⁾가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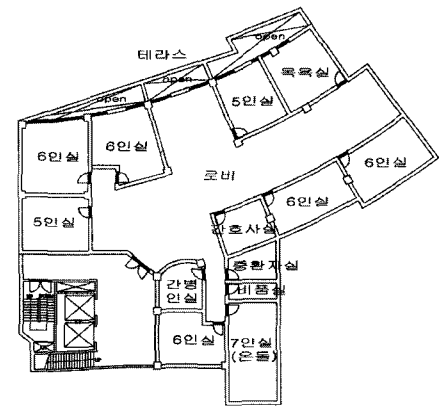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치매노인시설을 위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조사결과

4.1. 치매노인전문병원의 개요

조사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매노인전문병원은 본관과 별관의 2개 건물에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본관의 경우는 지하 1층에, 6층 건물인 별관의 경우는 1층과 2층의 2개 층에 치매전문병동이 위치해 있었다. 본관 병동은 1996년에 완공된 건물이지만 2003년에 지하층을 치매병동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1).

여기에는 로비, 간호사실, 간병인실, 비품실, 공동목욕실겸 화장실의 공동공간이 있고, 병실은 5인실 2개, 6인실 5개, 7인용 운돌실 1개, 1인용 중환자실 1개로 모두 48명을 수용할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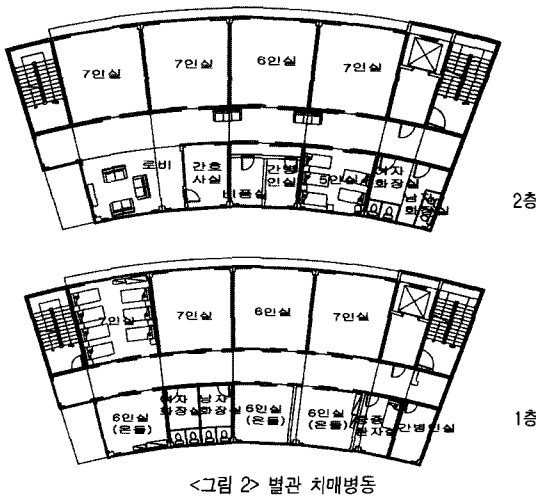
<그림 1> 본관 치매병동

되어 있었다. 병실의 바닥은 모두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벽은 아이보리색 페인트칠을 하였으며 천정은 흰색 텍스타일로 되어 있었다. 조사당시인 2004년 8월에는 47명(남자 14명, 여자 33명)의 치매환자들이 입소하여 있었으며 간호사 6인과 간병인 9인이 근무하고 있었다.

별관 병동은 1996년 완공된 6층 건물로 이중 1층과 2층의 2개 층을 치매병동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2). 1층

17) 문창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기준에 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2호, 2003, pp.19-26
 18) 권순정, 노인요양시설의 거실면적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 6호, 2000, pp.31-40

에는 6인실 1개, 7인실 3개, 6인용 흔들실 3개, 1인용 중증 환자실 1개의 병실들과 복도, 간병인실, 남자 공동화장실, 여자 공동화장실의 공동공간이 있고, 2층에는 5인실 1개, 6인실 1개, 7인실 3개의 병실과 로비, 간호사실, 간병인실, 비품실, 남녀 화장실 등의 공동공간이 있었으며, 각 병실에는 인접한 2개 병실이 공동사용하게 되어 있는 부속화장실이 있었다. 병실의 바닥은 장판마감이고 벽은 분홍빛 페인트칠을 칠하였으며 천정은 흰색 벽지로 마감되어 있었다. 입소정원은 78명이었고, 조사 당시엔 남 27명, 여자 52명 총 77명이 입소하여 있었으며 간호사 9인과 간병인 9인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림 2> 별관 치매병동

4.2. 치매요양시설 디자인 요소들의 중요도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가 보는 치매요양시설의 일반적인 디자인요소, 공간배치요소,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의 실내디자인요소와 자연적 요소 각각의 중요도를 알아보았으며, 간호사와 간병인의 업무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이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하여 간호사와 간병인간의 차이점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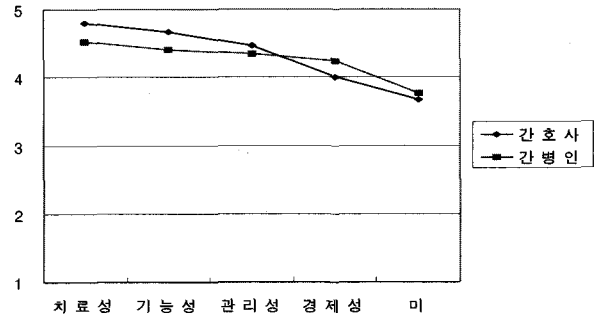
(1)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들은 치매요양시설을 디자인할 때 치료성(4.66)과 기능성(4.53) 및 관리성(4.41)을 아주 중요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미적인 측면(3.72)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1, 그림 3). 즉 치매요양시설은 치매환자들의 치유에 중점을 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간호사와 간병인이 치매요양시설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중요시하는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하였다.

<표 1> 치매요양시설에서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전체	간호사	간병인	t 값
치료성	4.66	4.80	4.53	1.624
기능성	4.53	4.67	4.41	1.165
관리성	4.41	4.47	4.35	.567
경제성	4.13	4.00	4.24	-.881
미(아름다움)	3.72	3.67	3.76	-.400



<그림 3> 치매요양시설에서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2) 공간배치요소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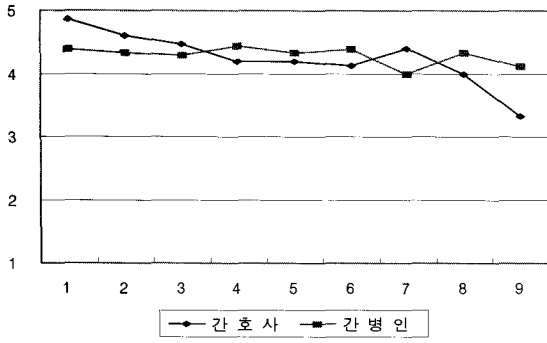
치매요양시설의 공간을 배치할 때 병실과 간호실과의 위치관계(4.61)와 배회공간 확보(4.45)가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전체 규모(4.38)와 병실당 사용인원수(4.33), 병동당 병실수(4.27), 병실과 거실과의 위치관계(4.27)도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4). 이러한 결과는 병실과 간호사실이 가까이 있어야 치매노인들의 요구 및 문제발생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치매환자에게 배회공간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치매요양시설의 공간을 배치할 때 이들 요소 모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병실과 간호실과의 위치관계와 병실과 식당과의 위치관계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간병인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병실과 간호실과의 위치관계는 간호사가 더 중요시한 반면, 병실과 식당과의 위치관계는 간병인이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와 간병인의 업무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간호실에서 병실을 자주 다녀야 하므로 두 공간의 위치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간병인은 환자의 식사를 담당하므로 병실과 식당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표 2> 공간배치요소의 중요도

	전체	간호사	간병인	t 값
병실과 간호실과의 위치관계	4.61	4.87	4.39	2.688*
배회공간 확보	4.45	4.60	4.33	1.152
전체 규모(입소 정원)	4.38	4.47	4.29	.683
병실당 사용인원수	4.33	4.20	4.44	-1.309
병동당 병실수(입원자수)	4.27	4.20	4.33	-.733
병실과 거실과의 위치관계	4.27	4.13	4.39	-1.174
공간배치형태(중복도형, 홀형 등)	4.18	4.40	4.00	1.727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접근용이성	4.18	4.00	4.33	-1.003
병실과 식당과의 위치관계	3.75	3.33	4.12	-2.421*

* p<.05



<그림 4> 공간배치요소의 중요도

- 1: 병실과 간호실과의 위치관계
- 2: 배회공간 확보
- 3: 전체 규모(입소 정원)
- 4: 병실당 사용인원수
- 5: 병동당 병실수(입원자수)
- 6: 병실과 거실과의 위치관계
- 7: 공간배치형태(중복도형, 홀형 등)
- 8: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접근용이성
- 9: 병실과 식당과의 위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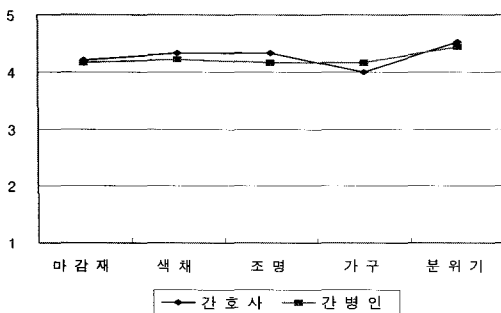
과는 치매요양시설을 디자인할 때 의료진 모두와 환자 뿐 아니라 간병인과 보호자를 포함하는 사용자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개인실과 공동공간 실내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가 생각하는 치매요양시설 개인실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실내분위기(4.48), 색채(4.27), 조명(4.24), 실내마감재의 종류(4.18), 가구(4.09)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실내분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색채와 조명도 비교적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그림5). 이러한 결과는 근무자들이 실내디자인 요소 중 실내분위를 가장 먼저 지각하게 되기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치매요양시설의 개인실 실내디자인은 특히 색채와 조명은 실내디자인 요소 중 실내분위기 조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므로 색채와 조명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3> 개인실 실내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개실	전체	간호사	간병인	t 값
실내분위기	4.48	4.53	4.44	.444
색채	4.27	4.33	4.22	.502
조명	4.24	4.33	4.17	.846
실내 마감재료의 종류	4.18	4.20	4.17	.148
가구(수납장)	4.09	4.00	4.17	-.653



<그림 5> 개인실 실내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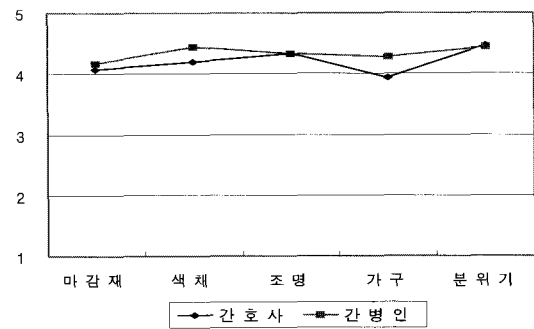
치매요양시설 공동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중요도도

개인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내분위기(4.45), 색채(4.33), 조명(4.33), 실내마감재의 종류(4.12), 가구(4.12)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실내분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색채와 조명도 비교적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6). 이는 치매노인들에게는 개인실과 공동공간의 구분이 강하지 않고 취침시간 외의 많은 시간을 공동공간에서 보내므로 치매요양시설을 디자인할 때 공동공간에도 개인실과 동일한 비중을 두고 실내디자인을 하여야 함을 암시해 주는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치매요양시설의 개인실과 공동실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간호사와 간병인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동공간 실내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공동공간	전체	간호사	간병인	t 값
실내분위기	4.45	4.47	4.44	.111
색채	4.33	4.20	4.44	-1.309
조명	4.33	4.33	4.33	.000
실내 마감재료의 종류	4.12	4.07	4.17	-.471
가구(수납장)	4.12	3.93	4.28	-1.349



<그림 6> 공동공간 실내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4) 자연적 요소의 중요도

자연적 요소의 중요도를 보면, 신선한 공기(4.88)와 햇빛(4.81)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물, 화분, 새, 물고기 등 자연요소(4.38)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표 5, 그림 7).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치매시설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 것은 본 조사대상의 별관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자연적 요소와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디자인할 때 신축일 경우는 처음 설계단계부터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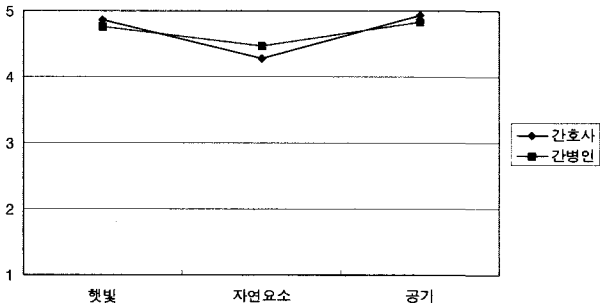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자연적 요소의 중요도는 간호사와 간병인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중요시하는 정도가 동일하였다.

이상 치매요양시설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종합하면, 치매요양시설을 디자인할 때 제시한 디자인 요소들은 거의

모두 4.0점 이상의 중요도를 보여 모두 중요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성과 기능성, 병실과 간호실과의 위치관계와 배회공간 확보, 개인실과 공동공간의 실내분위기, 신선한 공기와 햇빛은 아주 중요시해야 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연적 요소의 중요도

	전체	간호사	간병인	t 값
신선한 공기(환기 등)	4.88	4.93	4.82	.730
햇빛	4.81	4.87	4.76	.720
식물, 화분, 새, 물고기 등 자연요소	4.38	4.27	4.47	-.869



<그림 7> 자연적 요소의 중요도

4.3. 치매노인전문병원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매노인전문병원이 이들의 기대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관의 지하층과 별관의 1층과 2층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는 치매노인병동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본관과 별관에 대한 평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t 검증을 하였다.

(1) 치매노인전문병원의 디자인 전반에 대한 평가

1) 본관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들은 본관의 치매노인병동은 관리성(3.28), 경제성(3.17), 기능성(3.11), 치료성(3.06)은 있는 편이지만 미적인 측면(2.72)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6, 그림8). 또한 이들 5가지 측면에 대한 평가는 간병인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간호사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간호사와 간병인 간의 평가기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5가지 측면의 중요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모두가 중요시하는 정도보다 1점 정도씩 낮게 평가되어 본 치매병동이 근무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본 치료성과 기능성이 많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관이 지하공간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치매시설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공간이 아닌 개조된 공간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 별관

별관의 치매노인병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본관의 경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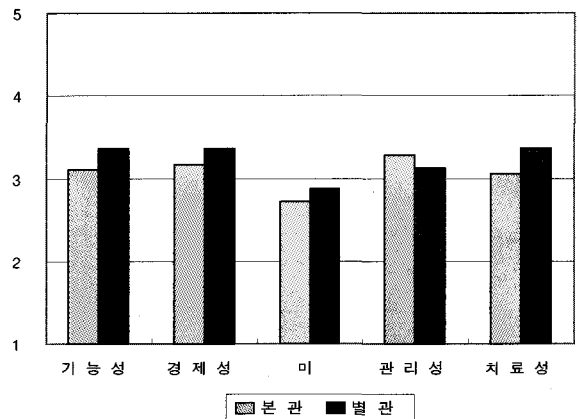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기능성, 경제성, 치료성에 대한 평가는 모두 3.36씩이고 관리성도 3.13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미적 측면에 대해서는 2.87로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병동의 디자인 전반에 대한 평가는 본관과 별관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요소들의 중요도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관과 별관 모두 이들 요소들의 관점에서는 다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6> 치매노인전문병원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결과

	본관			별관			t 값
	간호사	간병인	전체	간호사	간병인	전체	
기능성	2.78	3.44	3.11	3.17	3.50	3.36	-.868
경제성	2.89	3.44	3.17	3.17	3.50	3.36	-.696
미(아름다움)	2.33	3.11	2.72	2.67	3.00	2.87	-.425
관리성	2.67	3.89	3.28	2.67	3.44	3.13	.425
치료성	2.44	3.67	3.06	3.00	3.63	3.36	-.817



<그림 8> 치매노인전문병원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결과

(2) 치매노인전문병원의 병실과 공동공간에 대한 평가

1) 본관

본관 치매병동의 각 병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결과, <표 7>과 같이 5인실(3.39), 온돌실(3.24), 6인실(3.11)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반면, 중증환자실(2.67)과 부속화장실(2.61)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개인공간 중 5인실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간병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중증환자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환자실의 경우 특별한 시설없이 단지 빈 공간만으로 되어 있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부속화장실의 경우는 공동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공간 중에서는 중증환자실과 부속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공동공간에 대한 평가는 최저 2.50에서 최고 3.06으로 개인공간에 비하여 부정적이었다. 공동공간 중에는 로비공간(3.06)

에 대한 평가만 긍정적인 편이었고 간호사실(2.47), 관리실(2.56), 비품실(2.56), 욕실(2.50)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모든 공동공간에 대하여 3.0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업무공간인 간호사실에 대해서는 1.88점의 아주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병인의 경우도 로비와 간호사실을 제외한 관리실(2.78), 비품실(2.89), 화장실(2.67) 등의 나머지 공간에 대하여 3.0점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공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치매요양시설을 계획할 때 관리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배려도 중요시되어야 함을 암시해 준다.

이상 본관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본관 치매병동의 경우 병실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부속화장실, 중증환자실, 간호사실, 관리실, 비품실, 공동욕실 등 대부분의 공간은 간호사와 간병인의 기대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표 7> 개인공간 및 공동공간 각 실에 대한 평가결과

	실의 종류		간호사	간병인	전체
	개인공간	공동공간			
본관 (N=18)	개인공간	5인실	3.22	3.56	3.39
		6인실	2.89	3.33	3.11
		온돌실	2.89	3.63	3.24
		부속화장실	2.22	3.00	2.61
		중증환자실	2.44	2.89	2.67
	공동공간	로비	2.89	3.22	3.06
		간호사실	1.88	3.00	2.47
		관리실	2.33	2.78	2.56
		비품실	2.22	2.89	2.56
		공동목욕실겸 화장실	2.33	2.67	2.50
별관 (N=15)	개인공간	6인실	3.17	3.89	3.60
		7인실	3.33	3.25	3.29
		온돌실	3.50	4.11	3.87
		부속화장실	2.00	2.50	2.29
		중증환자실	2.83	3.50	3.21
	공동공간	복도	3.33	4.00	3.69
		간병인실	1.50	3.71	2.69
		공동화장실(남)	2.50	3.57	3.08
		공동화장실(여)	1.83	3.57	2.77
		공동욕실(2층)	2.20	3.29	2.83

2) 별관

별관 치매병동의 병실과 공동공간의 각 실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평가는 공간에 따라 다양하였다.

병실의 경우, 본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온돌실(3.87)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반면 부속화장실(2.29)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간호사는 부속화장실과 중증환자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고 간병인은 부속화장실에 대한 평가만 부정적이었다. 부속화장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부속화장실이 두 병실 사이에 위치하여 두 병실에서 공동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동공간의 경우, 복도(3.69)와 남자 공동화장실(3.08)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간병인실(2.69), 여자공동화장실

(2.77), 공동욕실(2.83)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간호사는 복도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간병인실(1.50)과 여자 공동화장실(1.83)에 대하여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간병인은 모든 공간에 대하여 3.27-4.00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와 간병인의 업무내용과 역할 등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별관 치매병동의 병실 및 공동공간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병실의 부속화장실을 포함한 공동화장실과 간병인실 및 공동욕실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본관과 별관의 병실 및 공동공간 각 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본관은 지하층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따라서 별관이 본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속화장실과 간병인실 및 공동화장실 등 공동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치매노인전문병원의 공간구성 평가

1) 본관

본관 치매병동의 공간배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보면, <표 8>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병실당 사용인원수(3.17)와 1인당 병실의 사용면적(3.11), 전체 규모(3.00), 병실과 로비와의 위치관계(3.00)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긍정적인 경우도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공간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공간배치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즉 간병인은 배회공간 확보(2.78)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간호사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공간배치형태에 대해서는 1.89의 낮은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에 따라 공간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따라서 공간계획을 할 때 모든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표 8> 공간배치에 대한 평가

공간배치요소	본관			별관			t 값
	간호사	간병인	전체	간호사	간병인	전체	
전체 규모(입소 정원)	2.56	3.44	3.00	3.00	3.22	3.13	-478
공간배치형태(중복도형, 홀형 등)	1.89	3.44	2.67	3.17	3.78	3.53	-2.621*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접근용이성	2.22	3.22	2.72	3.17	3.78	3.53	-2.470*
병실과 간호사실과의 위치관계	2.11	3.22	2.67	3.33	4.00	3.73	-3.402**
병실과 로비와의 위치관계	2.78	3.22	3.00	3.67	3.67	3.67	-2.711*
병실당 사용인원수	2.89	3.44	3.17	3.50	3.22	3.33	-568
1인당 병실의 사용면적	2.89	3.33	3.11	3.17	3.00	3.07	.137
배회공간 확보	2.33	2.78	2.56	3.00	3.22	3.13	-1.954

* p<.05 ** p<.01

2) 별관

별관 치매병동의 공간배치에 대한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호사와 간병인 모두 전 항목에 대하여 3.00점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병실 개실 당 사용인원수(3.33)와 1인당 개실의 사용면적(3.07)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높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본관과 별관의 공간배치 항목중 공간배치형태, 외부공간과의 연결성, 병실과 간호사실과의 위치관계, 병실과 로비와의 위치관계는 본관과 별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네 항목 모두 별관이 본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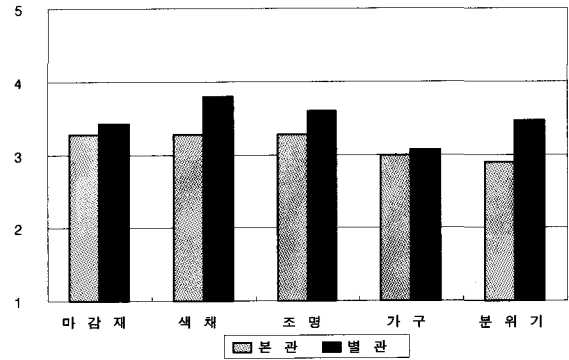
(4) 치매노인전문병원의 병실과 로비공간의 실내디자인요소평가

1)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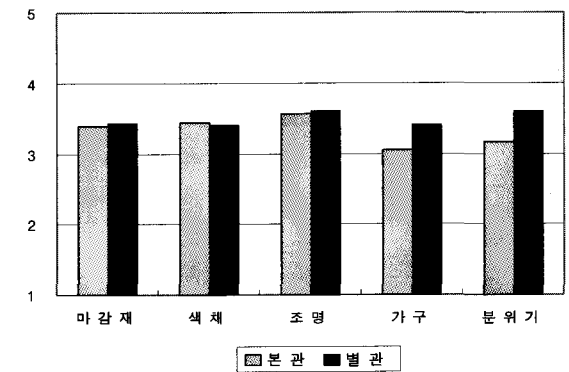
병실과 로비공간의 실내마감재, 색채, 조명, 가구, 실내분위기 등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 결과 <표 9>, <그림 9>, <그림 10>같이 병실의 실내분위기(2.89)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가구(수납장)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높았다. 가구의 경우 간병인의 평가가 간호사의 경우와 같거나 낮았는데 이는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병실과 로비의 가구를 직접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 등을 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실의 경우 실내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즉 병실은 환자의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과 같은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병실의 실내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실의 실내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별실과 로비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 항목 중 병실의 색채에 대한 평가만이 본관과 별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 별관이 아이보리 빛으로 되어 있는 본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9> 병실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평가결과



<그림 10> 공동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평가결과

2) 별관

별관의 병실과 복도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고, 복도의 조명에 대해서만 간호사가 간병인보다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높은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실의 색채(3.80)와 조명(3.60)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로비의 조명(3.60)과 실내디자인(3.60)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였다.

이상 본관과 별관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병실과 로비공간의 실내디자인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별관의 색채만이 본관의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5) 치매노인전문병원의 자연요소 평가

1) 본관

치매환자에게 자연은 치유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관 치매노인전문병원에서 자연요소를 얼마나 적절하게 도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다.

본관 치매병동의 자연요소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는 <표 10>과 <그림 11>과 같이 최저 2.56에서 최고 3.11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편이었으며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햇볕의 경우는 간병인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간호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식물, 화분,

<표 9> 병실과 로비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평가

실내디자인요소	본관			별관			t 값	
	간호사	간병인	전체	간호사	간병인	전체		
병실	실내마감재 종류	3.11	3.44	3.28	3.17	3.63	3.43	-0.531
	색채	3.11	3.44	3.28	3.67	3.89	3.80	-2.079*
	조명	3.00	3.56	3.28	3.17	3.89	3.60	-1.316
	가구(수납장)	3.00	3.00	3.00	2.83	3.22	3.07	-0.275
	실내분위기	2.67	3.11	2.89	3.00	3.78	3.47	-1.984
공동공간(로비)	실내마감재 종류	3.22	3.56	3.39	3.17	3.63	3.43	-0.165
	색채	3.33	3.56	3.44	3.17	3.56	3.40	.189
	조명	3.33	3.78	3.56	3.67	3.56	3.60	-0.204
	가구(수납장)	3.11	3.00	3.06	3.33	3.44	3.40	-1.549
	실내분위기	2.89	3.44	3.17	3.33	3.78	3.60	-1.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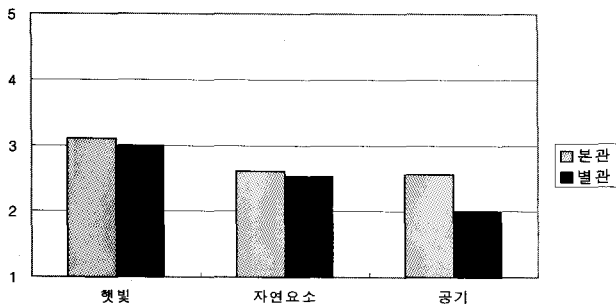
* p<0.05

새 등 자연요소와 신선한 공기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간병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햇빛을 비롯한 식물 등의 자연요소가 치매환자의 치유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요소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10> 자연요소에 대한 평가

자연요소	본관			별관			t 값
	간호사	간병인	전체	간호사	간병인	전체	
햇빛	2.89	3.33	3.11	3.17	2.89	3.00	.288
식물, 화분, 새 등 자연요소	2.33	2.89	2.61	2.33	2.67	2.53	.243
신선한 공기(환기 등)	2.33	2.78	2.56	2.33	1.78	2.00	2.182*

* p<.05



<그림 11> 자연요소에 대한 평가결과

2) 별관

별관의 자연요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호사는 햇빛에 대해서만 3.17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간병인은 모든 항목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요양시설에서 자연요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도입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을 암시해 주는 결과이다.

자연요소 항목 중 신선한 공기에 대한 평가는 본관과 별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본관이 별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병동 모두 인위적으로 환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본관병동의 환기가 더 잘 이루어져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디자인과 함께 사용자의 관리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상 조사대상자인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매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이 시설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간호사나 간병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4. 치매요양시설 디자인에 대한 요구

(1)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전체 규모

치매시설에서의 근무경험을 통해 볼 때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근무자들은 평균 70인 정도라고 하였다(표 11). 간호사는 평균 88인, 간병인은 평균 57인이 적절하다고 하여 다소 차이를 보

였으며, 또한 분포에 있어서도 간호사는 78.6%가 60인 이하라고 한 반면, 간병인의 경우는 40인 이하 37.5%, 80-100인 25.0%, 40-60인과 60-80인이 18.8% 씩으로 넓게 분포하여 차이를 보였다. 분포를 고려해 보면 100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작용하여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치매노인전문병원 근무자들이 보는 치매요양시설의 적절한 규모는 60인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건물이라해도 작은 그룹으로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드는 형태로 하거나, 또는 건물을 여러 동으로 분산배치하여 건물 한 동의 규모를 60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11>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전체 규모에 대한 요구

	간호사		간병인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40인 이하	4	28.6	6	37.5	10	33.3
41-60인	7	50.0	3	18.8	10	33.3
61-80인	0	0.0	3	18.8	3	10.0
81-100인	1	7.1	4	25.0	5	16.7
101인 이상	2	14.3	0	0.0	2	6.7
계	14	100.0	16	100.0	30	100.0
평균	87.6인		57.2인		71.4인(80.31)	

(2)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개실구성

치매요양시설의 개실은 몇 인실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치매요양시설에 필요한 개실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표 12), 치매노인 요양시설에 필요한 병실의 종류에 대하여 2인실, 4인실, 5인실이라고 한 경우가 각각 2/3가 넘었다. 간호사는 1인실(80.0%)과 2인실(86.7%) 및 5인실(73.3%)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많은 반면, 간병인은 2인실(72.2%)과 5인실(72.2%)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1인실에서 6인실까지 다양하게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2> 치매요양시설에 필요한 개실의 종류

종류	간호사(N=15)		간병인(N=18)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인실	12	80.0	7	38.9	19	57.6
2인실	13	86.7	13	72.2	26	78.8
3인실	7	46.7	8	44.4	15	45.5
4인실	10	66.7	12	66.7	22	66.7
5인실	11	73.3	13	72.2	24	72.7
6인실	9	60.0	11	61.1	20	60.6
7인실	2	13.3	2	11.1	4	12.1
8인실이상	0	0.0	0	0.0	0	0.0

* 다중응답의 결과임

하지만 병실당 적절 사용인원수에 대하여는 4-5인이라고 한 경우가 74.2%로 많았다(표 13). 따라서 개실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되 4-5인의 비중을 반 이상으로 가장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13> 병실당 사용인원수

	간호사		간병인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인	0	0.0	2	12.5	2	6.5
3인	1	6.7	0	0.0	1	3.2
4인	6	40.0	7	43.8	13	41.9
5인	6	40.0	4	25.0	10	32.3
6인	2	13.3	2	12.5	4	12.9
7인	0	0.0	1	6.3	1	3.2
계	15	100.0	16	100.0	31	100.0
평균	4.43인(82)		4.31인(1.33)		4.37인(1.10)	

(3) 치매요양시설의 실내분위기

치매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치매요양시설의 실내 분위기는 화려하기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하며 아늑한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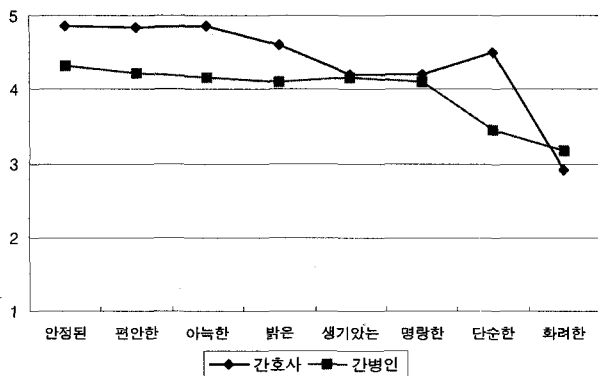
간호사는 치매요양시설의 실내분위기는 안정된 편안한 아늑한 밝은 단순한 분위기여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간병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간호사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려한 실내분위기에 대하여는 모두가 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분위기와 달리 간병인이 간호사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치매요양시설의 실내분위기 표현어휘 중 편안한, 아늑한, 단순한은 간호사와 간병인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간호사가 간병인보다 편안하고 아늑하며 단순한 실내분위기의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치매요양시설의 실내분위기에 대한 요구

	전체	간호사	간병인	t 값
안정된	4.58	4.87	4.33	1.912
편안한	4.52	4.87	4.22	2.364*
아늑한	4.47	4.86	4.17	2.361*
밝은	4.33	4.60	4.11	1.985
생기있는	4.19	4.21	4.17	.153
명량한	4.16	4.21	4.11	.372
단순한	3.91	4.50	3.44	4.063***
화려한	3.06	2.92	3.17	-.643

* p<.05 *** p<.001



<그림 12> 치매요양시설의 실내분위기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치매요양시설 디자인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시설을 디자인할 때 치료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능성과 관리성도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여야 한다.

요양시설의 디자인은 치매의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거나 호전되도록 하는데 유용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치료에 효율적인 실내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되고 편안하며 아늑한 실내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햇빛과 식물, 공기같은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둘째, 치매요양시설의 공간구성을 할 때 개실과 간호실과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회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체 규모와 개실당 사용인원수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요양시설의 전체 규모는 60인 이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단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며, 개실당 인원수는 4인이나 5인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치매요양시설의 개실과 공동공간의 실내디자인을 할 때는 실내분위기 조성을 중요시하여야 하며 색채와 조명도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넷째, 치매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병인간에 치매요양시설 디자인에 대한 요구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치매요양시설을 계획할 때 사용자 모두의 요구를 토대로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해 준다.

본 연구결과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치매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치매요양시설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보다 다양한 치매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직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한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사례연구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1. 권순정, 노인요양시설의 거실면적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 6호, 2000
2. 권순정, 치매성 노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II) - 치매 전문요양시설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1권 3호, 2000
3. 권순정·조명희·김대년·최정신,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 5호,

2000

4. 김대년, 유료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집단간 차이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3호, 2003
5. 류승수·김광배·이경훈, 치매양로시설에서의 치료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5호, 2002
6. 문창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기준에 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2호, 2003
7. 양금석, 치매노인의 공간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1호, 2002
8. 양금석,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9호, 2002
9. 양금석, 치매전문요양시설 공간이용의 시계열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11호, 2003
10. 오은진·박영기, 치매전문요양시설 평가도구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6호, 1999
11. 오은진·김민규·박영기, 치매노인의 행동특성과 거주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 6호, 2000
12. 오관욱, 치매노인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공간디자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권 5호, 2004
13. 이민아·유옥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1호, 2004
14. 이정민·유영민, 치매노인전문병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7권 12호
15. 조영행, 치매병동의 건축 디자인 환경에 대한 staff들의 인식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 12호, 2000
16. 조영행, 치매요양소의 주거환경 평가 : 평가도구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3호, 2001
17. 최유신·박재승, 치매병원 치매환자의 공용생활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5호, 1999
18. 최유신·박재승, 치매병원 병동부 공용생활공간의 유형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8호, 1999
19. 최정신·이연필순,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의 그룹홈, 한국주거학회지, 8권 3호, 1997

<접수 : 2005. 10. 14>